

원내 1당 좌우할 '미니 총선'

내달 1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송파울·노원병 등 선거에 이목 집중 한국당 9석 거머쥐면 원내 1당 등극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원내 1당 지위를 좌우할 '미니 총선'이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함에 따라 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12곳으로 확정됐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시행되는 곳은 서울 송파구울,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6곳이다.

의원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구울,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울 등 6곳이다.

▲최재성·배현진 격돌 '송파울' 최대 격전지...노원구·천안갑 등도 관심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12곳 중 8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울 최재성 전 의원, 서울 노원병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부산 해운대울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 광주 서구갑 송갑석 노무현재단 광주운영위원, 울산 북구 이상현 전 울산시당위원장, 충남 천안갑 이규희 전 천안갑 지역위원장,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전 무안군수, 충북 제천·

단양 이후삼 지역위원장 등이다.

한국당도 민주당과 동일하게 8곳에 후보를 냈다. 서울 송파울 배현진 전 앵커, 서울 노원병 강연재 변호사, 부산 해운대울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충남 천안갑 김환영 전 KBS 사장, 인천 남동갑 윤형모 변호사, 충남 천안병 이창수 당협위원장, 경북 김천 송연석 송연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경남 김해울 서종길 당협위원장 등이다.

바른미래당은 서울 노원병 이준석 당협위원장, 부산 해운대울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충남 천안갑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 울산 북구 강석구 울산시당위원장 등 4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이윤석 전 의원, 광주 서구갑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곳, 민중당은 울산에서 권오길 후보를 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송파울로 꼽힌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최재성 전 의원이 방송인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배현진 전 MBC 앵커와 맞붙는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서울 핵심 지역인 송파울에서의 승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박종진·송동섭·유영권·이태우 후보를 놓고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를 낼 예정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노원병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고 한국당은 '안철수 키즈'로 불리는 강연재 변호사를 출전시켰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지역위원장도 당내 공천 갈등을 뚫고 후보 타이틀을 달았다.

이밖에 충남 천안갑, 부산 해운대울 선거에도 인지도 높은 각 당 주자들이 도전장을 내밀며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 고공행진 이점...한국당은 9곳 승리시 원내 1당으로

이번 재·보선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선거 결과에 따라 여의도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이 118석, 한국당이 113석, 바른미래당이 30석, 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대한국당이 1석 등이다.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재·보선 완승을 기대하고 있다. 아편이 '문재인 정권 1년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보선 승리까지 떠날다면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벌리며 하반기 국회의 주도권을 거머쥌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원내 1당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재·보선 전지역 승리를 나눠 행간에는 가정 하에 한국당이 9곳 이상에서 이기고 민주당이 3승 이하에 그치면 한국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는 관례에 따라 하반기 국회의장까지 세울 수 있게 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은 지방선거에 비해 인물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더 늘리면 하반기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한국당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최근의 '이당 패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박지원 "특검·추경 오늘 동시 처리 어려워"

"민주당 지도부, 잘못 처리했으면 바로 수습 해야하는데 계속 끌고가" 비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예정대로 18일에 동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21일 처리로 약속한 것을 자기들이 사전 설명도 없이 어겼다면서 이갑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화냈다. 저도 술한 정치적 거짓말과 잘피기 위해서 사기도 쳐봤다"면서 "그렇게 이렇게 근본적 사기는 안했다. 우리가 합의를 해줘서 (14일) 분회의가 딱 정족수가 됐다. 그러면 바로 표결처리해서 의원직 사퇴서만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건 평화당이 민주당과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알고듣고 거기에서 추경과 특검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이렇게 흔들릴 게 없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 처리했으면 바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특검에다가 한 술갈 얹



는다 한 술갈 얹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를 얹고 있다"면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언론에 자주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냐"고 분석했다.

또 "제가 처음에 특검 빨리 받고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더 큰일 난다고 하지 않았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라도 못 막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지지도가 높냐"면서 일갈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저

뉴스스

"시끄러운 화성기·로고송 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유인·이현재 민주당 순천시의회 예비 후보 참여



왼쪽부터 허유인, 이현재 순천시의회 예비 후보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끄러운 화성기와 로고송을 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유인(덕영동·조곡동)·이현재(풍덕동·저전동·장천동)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회 예비 후보들이

화성기 장비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다 △로고송을 틀지 않는다 △선거 운동 기간 거리인사는 가능한 조용한 선거를 한다는 3개항을 실천하기로 했다.

허 예비후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화성기 없는 조용한 선거를 치러 유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화성기 등을 통해 시끄럽게 자신을 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진정 시민을 위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재선의 허 후보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등 훨씬 더 열심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들은 시끄러운 선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 운동을 바란다"면서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뛰어들어 한 유권자도 더 만나 소통하고 열심히 일 잘하는 청년 일꾼을 부각시키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한편 선거 운동기간 후보가 화성기와 로고송 제작 및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00~700만원 등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승호 기자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